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2년 11월 뉴스레터 vol. 59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우고 비우고 늙어감을 어찌할 것인가

알쓸신장 상조회사 잘 고르는 법

채비 추모장례 이야기 마지막을 준비한다면 오늘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메멘토모리 치매환자가 기록한 치매 이야기

채비학교 '채비플랜 + 채비하다' 수강생 모집

조합소식 채비장례서비스 광고 3종 제작

늡어감을 어쩔 것인가



우리 사회의 위기는 기후재앙과 고령화에서 비롯된다. 기후 문제는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 중이다. 전세계적으로 산불과 폭우, 태풍은 더 자주 발생하며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작은 마을이 갑자기 높아진 해수면에 잠기거나 홍수 등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브레이크 터진 기관차에 올라타 속수무책 불안한 질주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인류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기후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손을 쓰기에는 늦었다는 분석도 많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미래를 더 어렵게 만든다.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개인이나 한 가정으로 보면 축복이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노인인구를 떠받치고 있는 세대도 점점 늡어간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률이 출산율을 앞선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이런 추세라면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9월 29일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22년 7월 1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천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5.2%(44만7천명) 늘었다. 고령인구가 9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전체 인구(5163만명)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7.5%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올라가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7년으로, 일본(10년)·미국(15년)·영국(50년) 등보다 훨씬 짧다. 가구주 연령이 65살 이상인 고령자 가구도 올해 전체 가구의 24.1%에 머물렀으나, 2050년에는 전체의 절반인 49.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고령자 중에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였다. 이 가운데 48.4%는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전체 고령자의 절반이 넘는 54.7%는 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53.3%로 가장 높았다.

2019년 기준 국내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 비율)은 43.2%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2곳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프랑스(4.4%)의 10배, 미국(23.0%)의 2배가량에 이른다.

나는 60세를 1년 앞두고 있다. 노년이 시작되었다. 나의 재산은 고령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1048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5년 동안 따라잡기도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는 앞으로 빈곤 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 또한 자신하기 어렵다. 무릎 관절은 진작에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혈압도 높은 편이다.

출퇴근 시간대에 마주치는 노인 선배들을 유심히 살펴본다. 머리는 빠져서 듬성듬성하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여러 개 피었다. 후줄근한 입성에 느릿느릿 걷는 모습은 마치 시들어가는 잎새같다. 내 모습도 점점 그렇게 닮아가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까지 보다 더 좋을 것 같지 않다. 기후위기와 노령사회에서 훨씬 나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그나마 나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늙어가고 어떤 노년을 살아갈 것인가. 이 만만치 않은 숙제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상조회사 잘 고르는 법



급격한 도시화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워지자 대형병원 중심으로 장례식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장례식장으로 내려가 장례를 치르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사망하면 가정으로 이송해 장례를 치렀는데 이 상황이 역전되었다. 요즘은 가정에서 사망해도 병원(전문)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해 장례를 치른다.

이런 변화를 눈여겨본 이들이 또 있다. 이들은 장례업이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발 빠르게 선불식상조사업을 시작한다. 상조업자들은 일본의 호조회를 모델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상조회사는 한때 450여 개가 난립할 정도로 성업했지만 지금은 부도나 폐업으로 대부분 문을 닫아 60여개 정도가 남았다. 업체 오너들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영업비용 등이 그 원인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도 부실업체를 정리하는데 한 몫 했다.

상조회사는 크게 선불제와 후불제 업체로 나뉜다. 선불제는 장례용품과 인력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매월 일정액을 매월 선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60만 원짜리 상품이라면 120회를 납입해야 1회의 장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선불제 상품의 가격은 36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장례식장의 빈소, 안치실, 입관실 등 시설 사용료와 식음료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봉안당이나 묘지 같은 장묘 영역 또한 별도의 영역이다.

반면 후불제는 미리 선납하지 않고 장례를 치른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1회 장례시 28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로 선불제에 비해 저렴하다. 광고비나 영업수당, 관리비 등이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대세는 선불제였으나 최근 후불제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다. 선불제 업체들이 대거 정리되면서 전업한 경우도 있고, 후불제의 시장성을 보고 큰 자본을 투자한 업체도 있다. 후불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80만원~120만원에 서비스 한다는 업체들도 나온다. 선불제와 후불제에서 용역을 받아 의전을 수행하는 업체도 있다. 본청에서 수수료를 제하다 보니 인건비를 줄여 겨우 마진을 남긴다.

선불제와 후불제의 서비스 차이는 어떨까. 장례에서 상조회사 영역은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도우미) 등 인력과 생화제단, 수의, 버스과 리무진 등 장례용품 영역이 있다. 서비스 질은 장례서비스 자체가 표준화되고 경험 많은 장례지도사들이 여러 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장례지도사는 장례접수, 상담, 행사 진행까지 책임진다. 3일장이 끝날 때까지 총괄한다. 접객도우미 가격은 1인에 10시간에 9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초과수당이나 심야 교통비가 추가되기도 한다.

그럼 상조 영역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앞서 말한 대로 상조상품은 80만 원~72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수시관, 탈지면, 알코올 등 수시용품과 광보, 명정, 습신 등 입관용품은 30만원 내외이다.

먼저, 입관용품 중 가장 비싼 것은 수의이다. 비단, 대마, 저마, 인견, 면 등 재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내가 일하는 조합에서 치른 장례 중에 6천만원에 구입했다는 수의도 보았다. 상주가 모 대학 교수였는데 아주 자랑스러워 했다. 단언컨대 그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천하의 안동포도 300만원 내외인데 가당치도 않다. 가장 좋은 수의는 불에 잘 타거나 잘 썩는 수의이다. 나는 평소 입던 옷도 좋다고 본다.

다음으로 관이다. 오동나무나 솔송집성목이 주로 쓰인다. 매장이나 화장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업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다. 어떤 재력가의 장례를 치르는데 원가 30만 원짜리 관을 3천만 원에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온갖 요설을 다 동원해 사기를 치면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장례지도사는 1인으로 정해져 있는데 3일간 인건비는 50만원~70만원 정도이다. 입관시 보조인력(10만원~15만원)이 붙는다. 접객관리사는 몇 명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조문객 수가 많을 경우 4명 이상 붙기도 한다. 생화제단은 크기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다양하다. 또 버스나 리무진은 거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버스나 리무진 중 하나만 쓸 수도 있다, 왕복 300킬로미터 기준으로 40~70만원 정도이고 초과시 킬로미터당 2천원 정도가 붙는다.

상조회사가 어디든 장례용품과 인력은 대동소이하다. 서비스 질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상조회사나 정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겉으로 내세우는 가격이 아니라 실제 가격이다. 80만원에 상조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고객을 낚은 후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하고 ‘업셀링’을 하는 것이다. 상조서비스는 대체로 300만원~35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

가장 좋은 상조회사는 정직한 장례회사이다. 사전에 계약한 대로 진행하는 곳이 믿을 만하다.. 정해진 가격 외 ‘업셀링’이나 추가를 하지 않는 곳이 좋다. 요즘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사례비를 요구할 경우도 있는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례비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이런 것도 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다. 한번 받으면 다음에도 바라는 심리가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장례절차나 전문용어로 현혹하거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면서 효도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갑자기 닥쳐서 허둥대기보다 사전에 여러 상조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무조건 싼 곳을 찾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세상에는 싸고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상조시장은 눈 뜨고도 코 베이는 곳이다. 현명한 소비자만이 바가지를 피할 수 있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마지막을 준비한다면 오늘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 오후에 공간채비에서 모의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공간채비 애도모임을 4주간 진행한 김은자 조합원의 모의추모식이었습니다. ‘모의’라고는 하지만, 실제 장례현장 추모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김은자 조합원은 추모식을 준비하는 1~2주 동안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정리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광사넷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모의 추모식을 했는데 그때도 떨림과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은자 조합원도 같은 부담감과 떨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일상을 멀쩡히 살아가다 갑자기 살아있는 자신의 추모식을 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본인에게나 지인들에게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란 늘 그렇게 갑작스럽게도 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와도 우리는 마지막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제대로 된 정리없이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추모식에는 함께 애도모임을 진행했던 사람들과 지인들을 초대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랑하는 친우의 마지막을 모의로라도 직면하기 어려운 마음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6~7명이 모여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모식은 노년과 죽음을 돌보는 것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이 있는 늘봄미디어가 함께 했고 추모식 전후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긴장되고 경직된 상태로 추모식 시작을 알리고, 생애사를 읽고, 추모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유품소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은자 조합원이 본인 유품에 깃들어 있는 추억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좀 웃기도 하고 박수도 나왔습니다. 추모식 후 그의 말을 들어보니, 유품을 만지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놓다 보니 마음을 누르고 있던 무겁고 두려운 것들이 훨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벼우면서 명징하게 정리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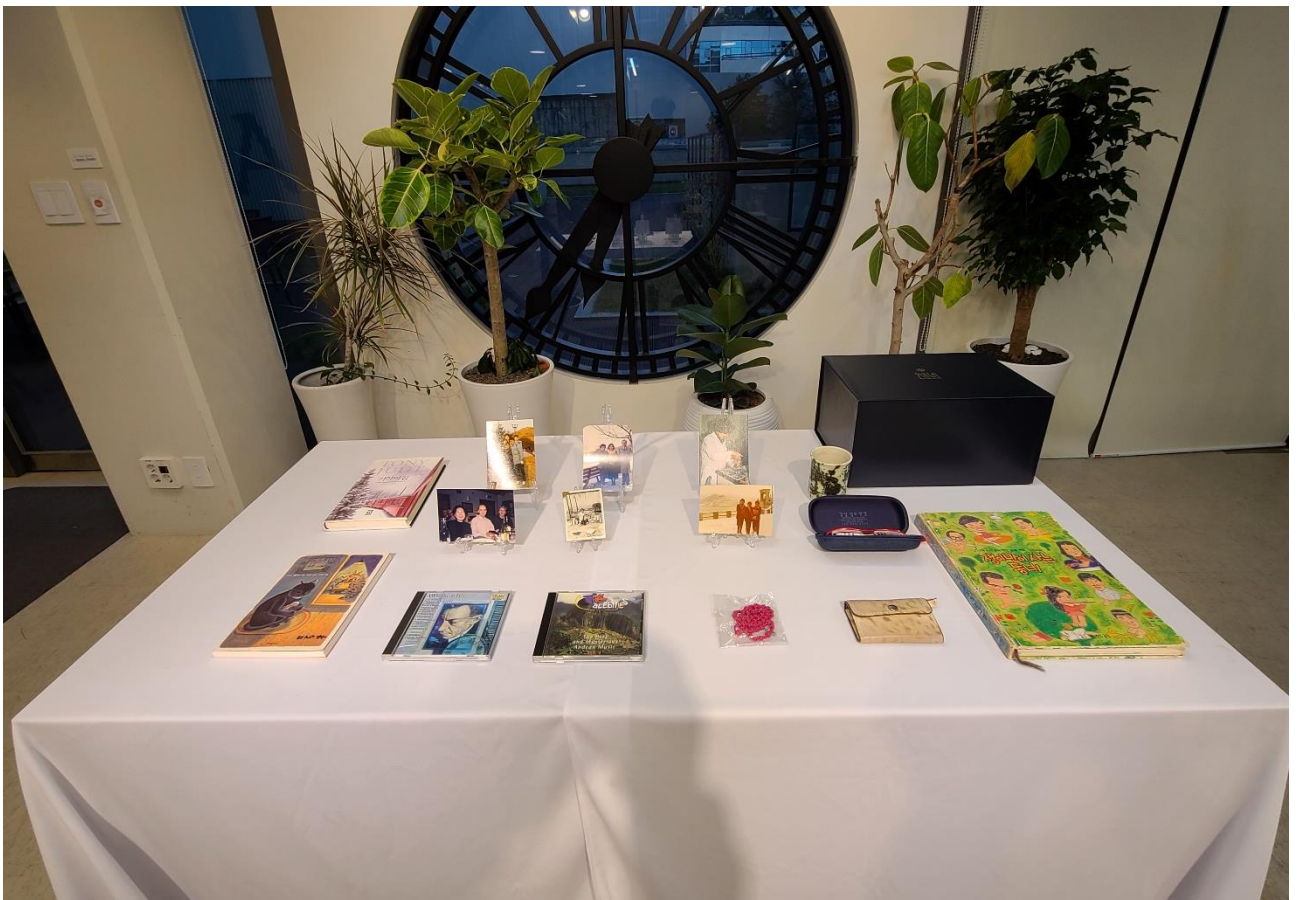
추모식을 잘 마쳤습니다.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그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추모플래너로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숨가쁘게 살아오는 중에 엉켜진 실타래같은 복잡한 생각을 정돈하고, 소진된 영혼에 살아갈 새 힘을 채우는 ‘모의추모식’ 해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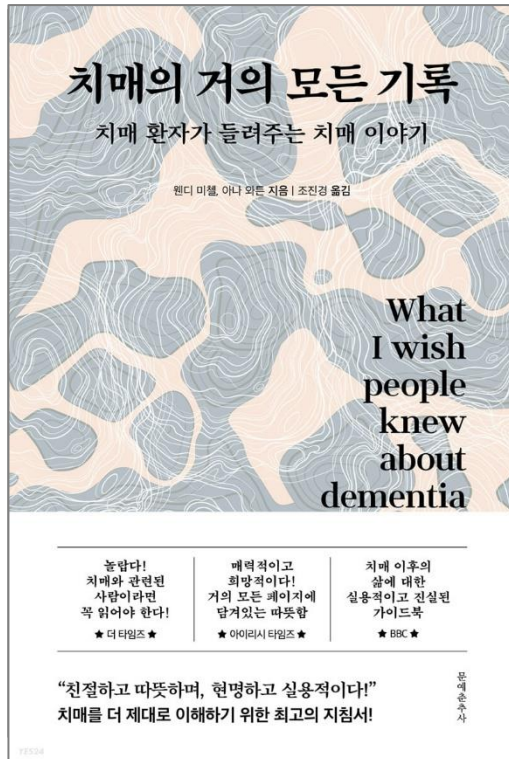
이곳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공간채비로 노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맞이할 마지막 순간을 위해 삶을 정리할 수 있다면 오늘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전승욱 |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치매환자가 기록한 치매 이야기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

웬디 미첼 | 문예춘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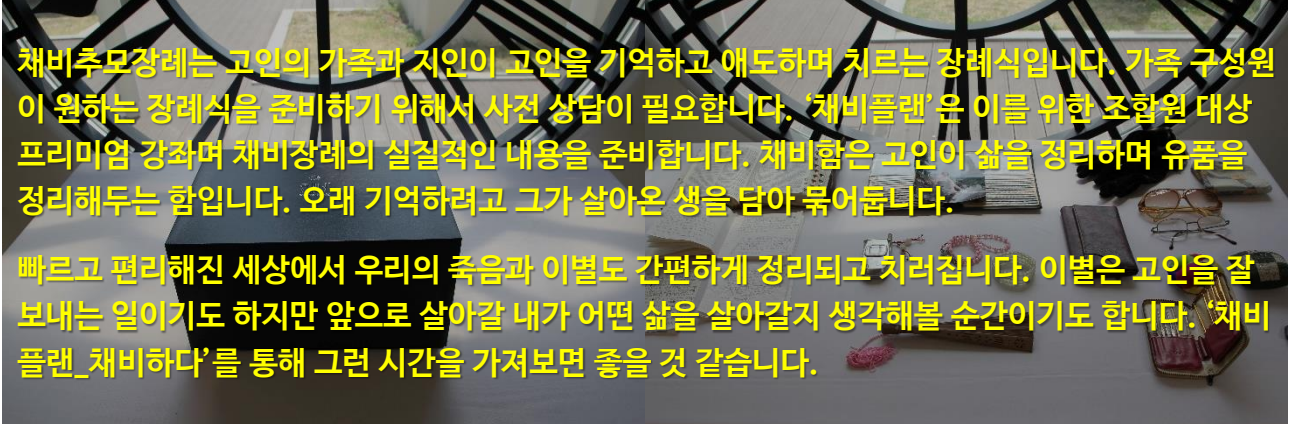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는 치매 환자다. 2014년, 58세라는 이른 나이에 조기 치매를 진단받고, 그렇게 인생의 끝을 느낀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치매 당사자인 저자가 들려주는 치매 이야기, 그녀의 기록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치매가 있어도 좋은 삶’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치매는 병의 진행이 급속하지 않아서 시작과 중간과 끝이 선명히 이어지는 질환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한다면, 누구라도 설령 치매 환자가 되어도 지나치게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저자의 조언이다. 그리고 ‘치매가 있어도 좋은 삶’을 나름대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저자는 치매 진단 이후에 행복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기까지 한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나는 가끔씩 치매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부담감을 털어내고, 사람들이 여전히 필사적으로 돌리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게 되어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 병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내는 내 능력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다행히도 낙관적인 성향의 저자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으면서도 아주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느라 분주하다. 그 즐거움의 하나가 바로 ‘기록’이고, 이 책은 그 ‘결실’인 셈이다. 덕분에 독자들은 치매라는 어둠의 영역을 아주 밝은 필터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치매 환자의 ‘감각’과 ‘관계’, ‘의사소통’, ‘환경’, ‘감정’, ‘태도’ 등 치매가 불러오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들여다보는, 치매 환자가 들려주는 치매에 대한 거의 모든 기록. 사실상 치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우리에게 너무도 유용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채비플랜 + 채비하다’ 수강생 모집



■ 교육 소개

- 교육내용: 채비 장례 준비, 채비장례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등
- 대상: 부모 세대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예비 상주 등
- 일정: 2022년 11월 24일(목) / 12월 1일(목) 오후 4시~ 5시 30분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교육 정원: 10명 내외 (선착순 마감)
- 수강료: 조합원 32,000원, 비조합원 52,000원
- *수강생 전원에게 채비함 (정가 49,000원) 증정
- 신청 링크: <https://forms.gle/kZqFFmn8umym937k7>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10시~ 오후5시)

■ 프로그램

강좌	제목	강의 내용	강의 날짜
1	채우고 채비함과 채비노트 사용설명서	-채비장례 소개 -채비함 사용설명서 -생애사 정리하기 -사진 기록/정리하기 -추모영상 준비하기	11월 24일 (목) 오후 4시~ 5시 30분
2	비우고 채비 추모장례	-장례 사전/사후 준비/정리 사항 -채비장례, 추모장례 소개 -장례 사전 준비, 영정 사진 선택, 유품전시 물품 목록 작성 -추도사 쓰기와 조문객 수와 부고 문자 작성 등	12월 1일(목) 오후 4시~ 5시 30분

채비장례서비스 광고 3종 제작



채비장례서비스 지면광고용 3종을 제작했습니다.

추모장례 에피소드로 장례의 본질 상기, 상표계의 정신을 담은 협동조합 강조, 약속과 신뢰의 상조서비스 컨셉으로 각각 제작했습니다.

잡지 지면광고 및 상품서비스 홍보페이지, 사회적경제연대진영 포스터 등 다양하게 사용할 계획이며, 조합원분들께서도 주위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보기 및 다운로드>

[연합회]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업무협약



(사진 왼쪽 김원영 좋은이웃 팀장, 오른쪽 김영주 한겨레두레 차장)

별 좋은 늦가을 11월 10일에,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좋은이웃은 안산 시흥지역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는 정직하고 질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협동조합 상조회사입니다.

두 단체는 앞으로 상조 서비스를 매개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상호이익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인연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2년 10월

윤형근 조합원 빙모상
조동희 조합원 부친상
박중서 조합원 모친상
서화경 조합원 시모상
허상채 조합원 모친상
이창환 조합원 지인상

황원섭 조합원 부친상
김경희 조합원 모친상
이순식 조합원 부친상
윤석위 조합원 지인상
황현실 조합원 배우자상
이현철 조합원 부친상

박상일 조합원 모친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김유진 조합원 부친상
이청순 조합원 배우자상
박은진 조합원 시부상

2022년 9월

배현지 조합원 시모상
이윤수 조합원 시조모상
정귀례 조합원 부친상
임정은 조합원 시모상
채규조 조합원 모친상

이지영 조합원 부친상
김진희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이수현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통일운동가 정용일 민주사회장
김선광 조합원 모친상
정윤희 조합원 부친상

2022년 8월

이미례 조합원 모친상
이수진 조합원 부친상
엄자옥 조합원 모친상
김정석 조합원 부친상
박수경 조합원 시부상
정대근 조합원 빙모상

김윤정 조합원 모친상
추경호 조합원 처남상
임갑열 조합원 형제상
임석규 조합원 모친상
윤복식 조합원 모친상
서단비 조합원 부친상

신동국 조합원 가족상
김지영 조합원 시모상
김남희 조합원 모친상
김종석 조합원 모친상
박사훈 조합원 빙모상
오은정 조합원 시모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KGK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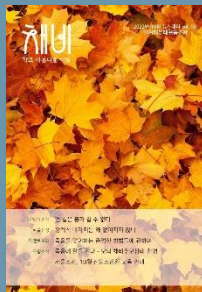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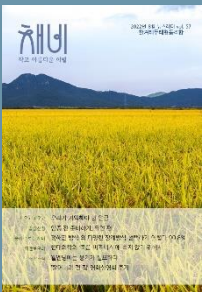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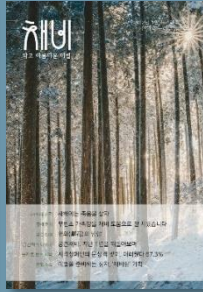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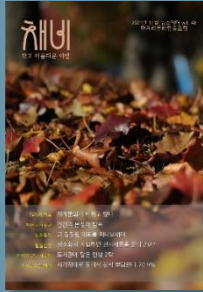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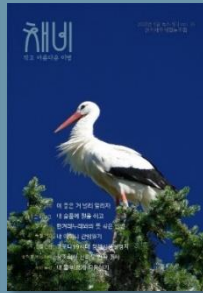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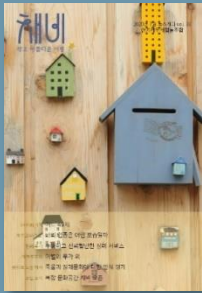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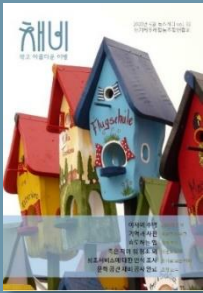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